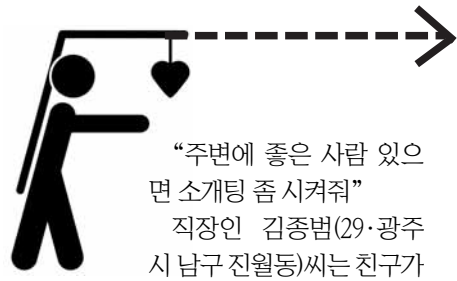


앱으로 짝 찾는 2030... 연애도 모바일시대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팅 좀 시켜줘” 직장인 김종범(29·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친구가 주선한 만남 때문에 난처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다. 소개받은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주선자를 배려해 장시간 대화하고 밥도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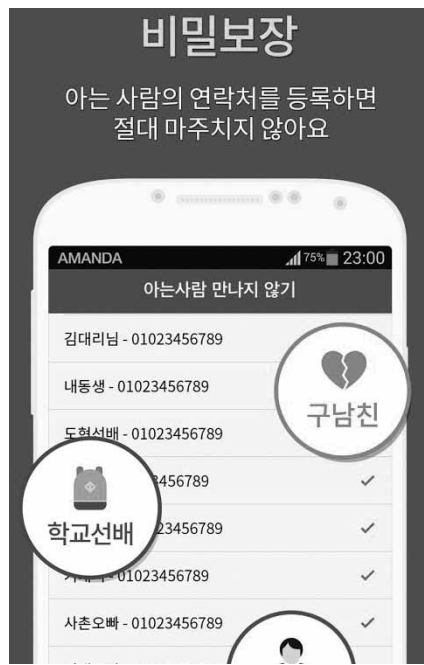
또 직장동료를 소개해 달라는 지인들의 부탁을 매번 모른 척 넘어가는 것도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정오의 데이트



이음



아만다

광주과학관서 체험도 하고 선물도 받고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이 방문객들이 과학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선물도 받아가는 ‘구석구석 과학교실 여행기’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구석구석 과학교실 여행기’는 지난해 실시한 ‘과학테마교실 스탬프 투어’의 장·단점을 반영해 올해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릴레이 과학교실 투어 프로젝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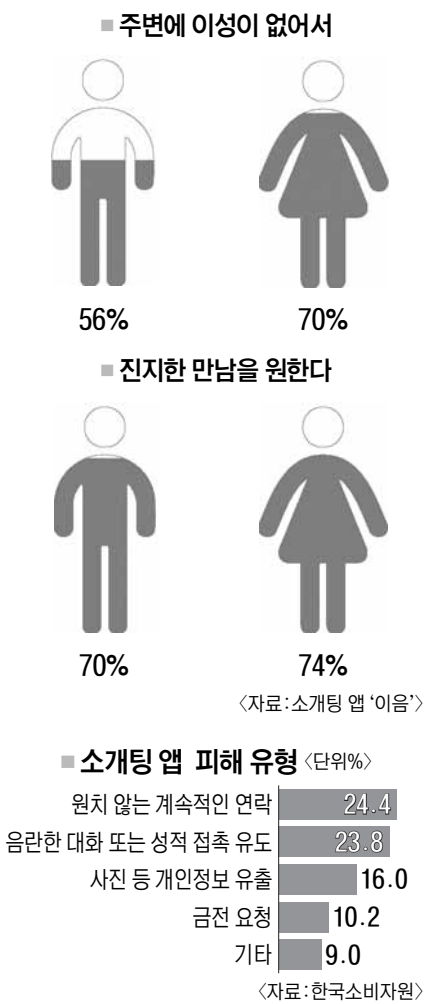
광주과학관을 루체리움 에어(LUCERIUM AIR) 항공사로 표현, 비행기를 타고 과학관을 여행하는 테마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개인별 발급된 가상여권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 마일리지를 적립,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과학관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구석구석 과학교실 여행기’는 오는 12월25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소개팅 앱 이용 이유



‘소개팅 앱’ 취준생·직장인 인기

이제는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소개팅’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이른바 ‘소개팅 앱’이라 불리는 소셜데이팅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다. 소셜데이팅은 스마트폰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온라인에서 쉽게 이성 간 건전한 만남을 주선하는 서비스다.

소개팅 앱 이용자들도 대다수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개팅 앱 ‘이음’이 지난해 12월 상권 남녀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성 70%, 여성 74%가 진지한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응답했다.

또 사용이유는 ‘주변에 이성 없어서’가 남성 56%, 여성 70%에 달했다. 취업준비와 직장생활 등 싱글 남녀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소셜데이팅 앱은 이용자의 학력이나 직업, 지역 등 기본 개인정보를 등록은 물론, 자신의 외모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도 필수다.

또 이런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감안해 하루 1~6명의 제한된 횟수로 정해진 시간에만 이성에게 자신의 프

로필을 제공한다. 이성의 프로필이 마음에 들면 이른바 ‘구애’ 표시를 한다.

이후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둘 만의 대화창이 생성되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주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20~30대다.

지난해 국내 전체 앱 매출액 10권에 진입한 ‘정오의 데이트’와 ‘이음’, ‘아만다’ 등 3사가 건전한 소개팅 앱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신분 인증 강화·이혼증명 요구도

또 젊은 층을 겨냥해 모바일 게임과 3:3 미팅으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팅게임’과 ‘코코아북’과 같은 앱도 떠오르고 있다. 싱글 직장인 전용 서비스 ‘만나컴퍼니’처럼 직업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이혼이나 사별을 한 사람을 뜻하는 ‘돌싱’(돌아온 싱글)을 위한 앱도 있다.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이성에게 접근한 정황이 포착되면 가족·이혼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회 분위기가 탓에 섯 만남에 나서지 못하는 이혼 경력자들도 남의 시선을 의식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편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 ‘올림세상’과 ‘은하수다방’ 등이 ‘돌싱’을 위한 대표적인 소개팅 앱이다.

개인정보 공개 신중해야

하지만, 무분별한 소개팅 앱이 난무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개팅 앱 이용자 절반 수준인 249명(49.8%)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소개받은 이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이 24.4%(122명)로 가장 많았고, ‘음란한 대화 또는 성적 접촉 유도’(23.8%, 119명), 사진 등 ‘개인정보 유출’(16.0%, 80명), ‘금전 요청’(10.2%, 51명), ‘기타’(9.0%, 45명)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사전에 차단, 건전한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가입단계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소개팅 앱을 이용하라고 권장했다. 또 프로필 작성 시 실명이나,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실내 자전거, IPTV 보며 실감나게 탄다

KT ‘IoT 헬스바이크’ 선보

KT가 9일 실내 자전거를 IPTV 또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실내 자전거 ‘기가 IoT 헬스바이크’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내에서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기분으로 운동할 수 있다. IPTV 화면에 오르막 경사가 나타나면 페달 강도가 세지는 식이다.

전용 애플리케이션 ‘마스터스’를 스마

트폰에 설치하면 운동량, 속도, 순위를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김근영 KT IoT 사업개발담당 상무는 “가정에서 꾸준히 사용하기 어려웠던 운동기구에 게임을 접목한 ‘헬스테인먼트’ 서비스”라고 말했다.

실내 자전거의 가격은 59만9000원이다. 다음 달 30일까지 39만원에 할인 판매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내년 쉬는 날 68일...추석 연휴는 7일이라고

한국천문연구원 월력요향

내년에는 올해보다 쉬는 날이 2일 더 늘어나겠다. 추석 명절 연휴는 7일이나 된다.

한국천문연구원(KASI)은 9일 발표한 월력요향에서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일요일 53번과 관공서 휴일 15일이 있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과 설 연휴 마지막 날이 일요일과 겹쳐 2일이 줄었다. 추석 연휴 중 개천절(10월 3일)에 포함돼 하루가 줄지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대통령선거일이 포함돼 실제 공휴일은 68일이다.

내년에 가장 긴 연휴는 추석이다. 추석 연휴는 10월 3~5일(화~목)이지만 6일

(금)이 개천절 대체공휴일이고, 9일은 한글날로 이어져 총 연휴가 7일이 된다. 추석 연휴 전날인 2일에 휴가를 내거나 직장에서 휴무일로 지정하면 10일까지 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 연휴도 원래 1월 27~29일(금~일)이지만 마지막 날이 일요일과 겹쳐 월요일(30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4일 연휴가 된다.

다. 어린이날과 성탄절도 각각 3일 연휴다. 주 5일제를 시행하는 직장은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이 120일이 된다. 하지만, 설날이 토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 수는 119일로 2016년보다 1일 증가한다.

2017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은 2월11일(토), 한식 4월5일(수), 단오(음 5월 5일) 5월30일(화), 칠석(음력 7월7일)은 8월28일(월)이다. 초복은 7월12일(수), 중복 7월22일(토), 말복은 8월11일(금) 등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